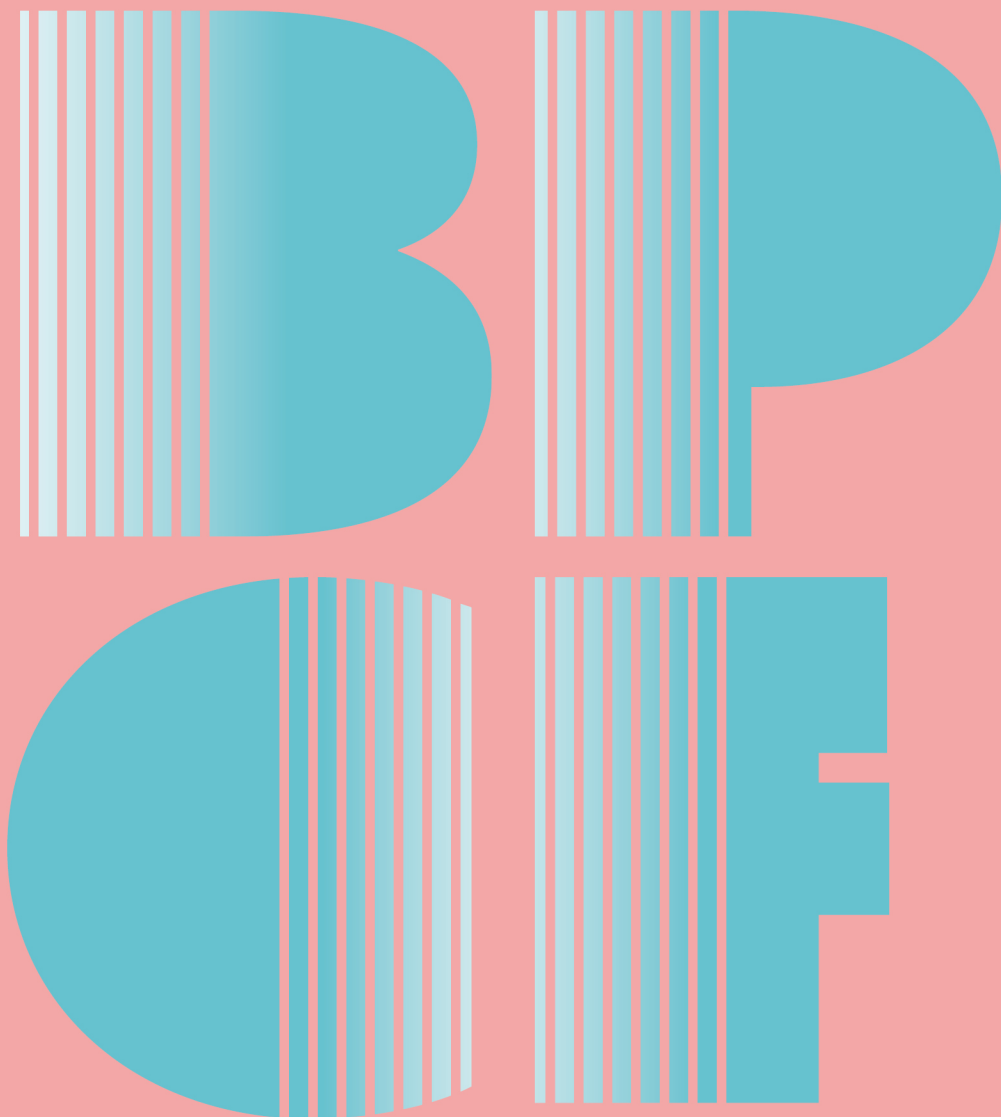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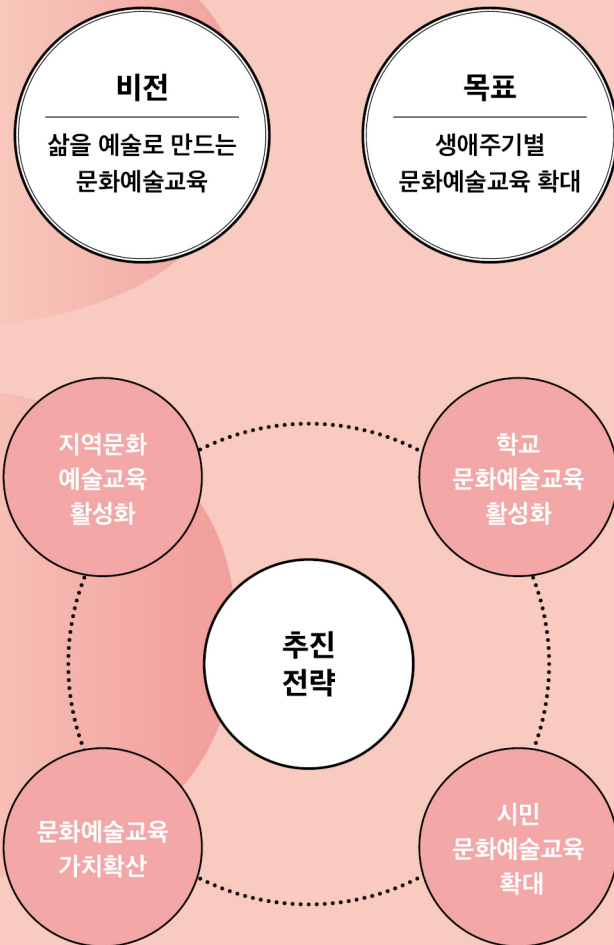
2020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2020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운영사업

전략	대상	운영사업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영유아	<시:작 학교>
	어린이	<어린이 연극학교>
	중장년	<내가 살~던 동네는 > 손그림 프로그램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청소년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생활>
시민 문화예술교육 확대	성인	일상문화예술교육 <B-class>(배-클라쓰)
	누구나	문화예술 토크콘서트 <B-stage>(배-스테이지)
문화예술교육 가치확산	누구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설명회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아카이빙북 제작

※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일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은 생애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한다.

우리에게 문화예술은 그 내적 특성에 의해 인간적 삶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그렇게 하여 형성된 삶의 의미를 현재화하는 과정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당연히 생애별로 방점을 달리한다. 인간은 일차적으로 몸을 지닌 존재이며, 몸의 조건에 따라 살아간다. 몸은 생리적 조건에 반응하면서도 문화적 환경에 의해 삶을 일정한 모양으로 조직하게 된다. 그러기에 어린이의 문화예술교육은 '자신(自身) 성취적 존재감'을 일깨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는 몸을 통하여 인간 삶의 공간성을 체득함으로써 거주와 실존의 정체성으로 삶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 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자기(自己) 이해적 존재감'을 사유하도록 해야한다. 우리는 흔히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혹은 '당신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기'라는 표현에는 혼자가 아닌 타자와의 대면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나와 타자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은 본질적으로 상징성과 의미성을 상호 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해석되어야 이해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이해적 존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의문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자기 삶의 문맥을 해석하는 이해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체 의존적인 이해의 형성이다.

- 동물은 죽음으로써 존재가 사라지지만, 인간은 죽음을 소멸로만 받아들이지 않

는다. 예를 들어 고인돌은 인간의 죽음을 의식하고, 죽은 자를 기억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그러한 인간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를테면 자신을 성찰하는 존재인 것이다. 장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자아(自我)성찰적 존재감'으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자서전에서 인간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회상하거나 행복했던 시절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이렇게 자아는 탄생한다.

우리말 용법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비되는 말이라면 '자아'는 보다 독자적인 주체, 즉 오류의 세계를 넘어 살아남으려는 단독자를 의미한다. 온전한 삶을 살려는 단독자에게 성찰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이다.

- 문화예술교육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신', '자기', '자아'의 인간적 존재감을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속성과 체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평구문화재단이 생애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싶다. 부평은 문화도시로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생애 문화예술교육이 그 발자취를 돌보고 가꾸는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현광일 작가

사:작 학교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 파블로 피카소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예술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자, 예술교육강사, 아동극 전문가들이 모여
영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일정 2020년 9월~11월
※ 12월 중 영아예술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예정

대상 6~18개월 영아

참여단체 극단 상상이상

내용 공연 <배 안에서>를 활용한 영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연극학교

또래 친구들과 직접 만드는 연극
어린이들은 자주 생각하지만 좀처럼 어른들은 알려주지 않는 주제를
안전한 공간에서 재미있는 놀이와 연극 활동으로 풀어보는 시간!

지난 10년 간 운영해 온 부평구문화재단 대표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연극학교’를 재정비하여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의 타고난 놀이성에 기반을 두고 구조화된 놀이와 드라마를 통해 참여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연극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번 ‘어린이연극학교’는 같은 성장 시기를 겪는 또래 집단인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보다 세밀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어린이연극학교’의 하이라이트인 전문공연장에서의 연극실연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일정 2020년 6월 6일~8월 8일 | 매주 토요일 10:00
(7월 3일~8월 7일 | 매주 금요일 16:30 추가운영)

발표공연 2020년 8월 8일(토) 부평아트센터 달누리 극장

대상 초등 3~6학년

연극으로 하는 비폭력대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라는 인문학적 토대와
즉흥연극을 결합한 문화예술교육
“공감을 해야 하는 순간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갈등을 손님으로
맛있어하여 연극과 비폭력대화를 통해 나를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지난해 파일럿으로 처음 선보인 초등 3~6학년과 보호자가 참여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모든 관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디에나 아이와 부모는 충돌하기 마련이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족이 아닌 모두가 겪는 일이다. 이제 곧 사춘기로 접어드는 우리 아이와 보다 성숙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일정 2020년 10~11월 중

대상 초등 3~6학년 및 보호자 (2인1팀)

※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교육연극 : 슬기로운 학교 생활

학교 사회에서 겪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를
안전하고 유쾌한 연극 활동으로 나누어보는 시간.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 맺기는 물론,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높여보자.

청소년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학교에서 펼쳐지는 관객 참여형 교육연극으로 익숙함과 고정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토론주제를 마주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학교 내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과 문제들을 '연극'으로 풀어낸다. 다름과 틀림, 차이를 문화예술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일정 2020년 6월~11월

대상 부평구 내 중학교



일상문화예술교육 B-Class 빠-클라쓰

청년, 직장인 등이 부평에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부평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클라쓰를 만나는 시간!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게 마련한 사업이다. 특히, 청년과 직장인들이 타 지역이 아닌 부평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게 만들고 싶은 바람에서 일상문화예술교육 'B-Class(빠-클라쓰)'가 만들어졌다.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확대하여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관심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20년도에는 1인 가구 증가, 결혼인구 감소 등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혼자'서도 풍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홀로"를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및 구성하였다.

● ● 6월 빠-클라쓰 <도자시간>

일정 2020년 6월 4일~6월 25일 | 매주 목요일 19:30 (총4회)

● ● 7월 빠-클라쓰 <알쓸맥잡 : 알아두면 쓸데있는 맥주 잡학지식>

일정 2020년 7월 23일~7월 30일 | 매주 목요일 19:30 (총2회)

● ● 9월 빠-클라쓰 <가배 플렉스>

일정 2020년 9월 3일~9월 24일 | 매주 목요일 19:30 (총4회)

● ● 10월 빠-클라쓰 <나 홀로 여행의 기술(記述)>

일정 2020년 10월 8일~10월 29일 | 매주 목요일 19:30 (총4회)

문화예술 토크콘서트 B-Stasge 빠-스테이지

예술을 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빠-스테이지를 통해 명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술과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

일정 2020년 11월 18일 | 수요일 19:30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중장년문화예술교육

<내가 살~던 동네는> 손그림 프로그램

자식들은 독립하고, 퇴직은 다가오고, 혹은 은퇴 이후의 삶이 무료할 때
부평에서 만나는 손그림 수업시간
그림도 배우고 내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고령사회 진입 등 국내환경 및 부평구 인구환경을 고려하여 50대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은퇴 전후에 삶에 대해 고민하는 중장년이 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체험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과 가치부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기능습득이나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인생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 마을, 지역 또한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기존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인 연극, 음악 장르에서 벗어나 시각예술인 회화 장르를 가져왔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를 섭외하여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담긴 동네들을 표현해보고 그들이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동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일정 2020년 9월 2일~11월 11일 | 매주 수요일 10:00~12:00 (총10회차)

대상 50대 이상 성인 누구나



사랑방 문화예술교육

• • <오늘은 뭐하고 놀지?>

일정 2020년 6월~8월

대상 초등 1~3학년

내용 과학, 미술 융합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예술교육

• • <드로잉&힐링>

일정 2020년 8월~9월

대상 초등 4~6학년

내용 미술작품 제작, 감상 및 미술관을 연계하는 창의 체험활동

• • <댄스 위드 미 - 춤과 인문학 여정>

일정 2020년 9월~10월

대상 성인

내용 다양한 무용장르에 대한 인문학 특강과 기본 동작의 습득

※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